



히스기야왕의 기도

열왕기하 18 ~ 20장, 역대하 29 ~ 32장

히스기야는 25세 때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다윗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이 닫아 버린 성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이하라.

우리가 그동안 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많은 벌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더러운 성전을 청소하고, 부서진 것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왕은 온 땅에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왕 이후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말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백성이 모두 즐거워하였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즐거운 때는 솔로몬왕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히스기야왕과 백성은 나가서 모든 우상과 산당을 부수었습니다. 또 백성이 그때까지 섬겼던 ¹⁾놋뱀도 부수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왕이 된 지 14년째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산헤립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히스기야왕은 백성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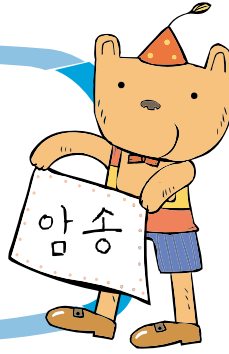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에 신하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 하나님을 욕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에게 항복하라.”

¹⁾놋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놋으로 만든 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으로 오랫동안 섬겼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18:3)



히스기야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이 편지를 보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앗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두려워진 산헤립은 앗수르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의 공부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이 된 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들을 써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하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

- ① 산헤립에게 항복했다.
- ② 화가 나서 나가 싸웠다.
- ③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5)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내 마음에 기쁨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 내가 그동안 잘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적어 보세요.

🌸 위에 적은 것 중 앞으로 잘 지키고 싶은 것을 하나 선택해서 아래에 적어 보세요.

저는

하겠어요.

👁️ 이제 여러분이 정한 것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잘했으면 O, 잘못했으면 X, 중간이면 △를 써넣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지킨 후 무엇을 느꼈나요?

예 화



기도

전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불빛은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 능력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고 구하는 기도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어두운 방에 앉아서 어둡다고 불평하고, 항상 나는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겠지요? 바로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나 자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기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